



**신한은행, 차세대 경영인 교육 프로그램인 '신한 MIP(Management Innovation Program for NEXT CEO)' 11기 입교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신한 MIP는 중소·중견기업 2세 경영인을 대상으로 경제·경영 및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 1기 25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0기까지 총 34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신한은행

## CJ제일제당, 지역농가 위해 쌀 6만t 산다

CJ제일제당이 국산 쌀 소비진작과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햅쌀 등 쌀 가공품 제품 생산에 사용할 용도로 국산 쌀 6만t 이상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6% 구매 물량을 늘린 것으로, 햅쌀(210g) 단일 제품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5억7000만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CJ제일제당은 국산 쌀 구매 물량을 2001년 800t에서 2011년 1만3000t으로

16배 이상 늘린 것에 이어 지난해에는 4만4000t을 구매하며 최근 10년간 전년 대비 평균 20% 가량 늘려왔다. 잡곡 역시 지난 해 구매 물량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높이는 등 국산 잡곡도 해마다 꾸준히 늘리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쌀 구매에 있어 농촌경제와 상생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 진천, 익산 등 10여 개 이상 지역과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GS리테일, SBS 등과 건전한 반려동물 생태계 조성**을 위해 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정서 퍼피웍스 대표(왼쪽부터 차레대로), 박정훈 SBS 사장,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나옥귀 펫츠비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S리테일



**농심켈로그, 세계 여성의 날 맞아 '밸런스 클래스' 개최** (3월 8일)를 맞아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밸런스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켈로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밸런스'를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밸런스 클래스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몸의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되는 집볼 운동 등을 배워보고 마음을 평정을 찾는 명상의 시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농심켈로그

## 롯데면세점, 대학생 영상제작 공모전 개최

롯데면세점은 오는 12일부터 '2019 롯데면세점 온라인 마케팅 챌린지' 대학생 영상 제작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19 롯데면세점 온라인 마케팅 챌린지'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고객들이 인터넷면세점을 보다 쉽고, 편리한 이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인터넷면세점 초보 이용자

를 대상으로 롯데면세점 가입, 쇼핑, 인도 등의 프로세스를 쉽게 알려주는 영상이면 된다.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 재/휴학생인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팀이면 응모 가능하다. 3월 12일부터 4월 7일까지 롯데인터넷면세점 사이트 내 팀 등록 후 메일로 영상을 접수하면 된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 정비사업 중 받은 금품은 '뇌물'



**여지운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Q. 조합의 이사인 A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됐다. 그런데 조합법인 등기에 여전히 이사로 등기된 상태였던 A는 임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계속하여 이사로 행세해왔다. 그러던 중 B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회 개최 비용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A. 조합장, 조합 임원, 추진위원장, 정비사업의 대표자·직원 등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마치 공무원처럼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합 임원 등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08도2590 판결).

만약 받은 금품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되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받은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범위의 벌금도 내야 하고, 받은 돈이나 물품은 몰수·추징된다.

이렇게 무겁게 처벌받게 되는 자들은

누구일까? 우선,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이사·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합이 법인 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아직 구체적인 조합 활동이 없었다고, 조합장이 금품을 받으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도1146 판결). 또한 조합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임원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임원 업무를 하다가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도15798 판결).

대법원은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된 후에도, 조합의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임원의 직무를 계속하던 중에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처벌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뇌물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알고 보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로 밝혀졌다면,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등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도7190 판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대표자나 임직원도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비업자가 추진위원회와 아직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도2590 판결). 다만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지원 등 도시정비법 제102조에서 정한 정비사업자의 직무와 관

련이 없이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정비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관련된 직무 이외의 영업에 관해서는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전고등법원 2008노42 판결). 그러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뇌물'이란 무엇일까? 뇌물이란 돈이나 물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향연을 베풀거나 채무를 변제해준 다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다거나, 유리한 지위나 기회를 제공해주는 모든 것이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이자 조합장인 갑이 을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을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갑이 받은 뇌물은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라고 보았다(대법원 2014도8113 판결). 즉 이러한 지위나 기회도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만 하거나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하여도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나 제3의 법인에게 이익을 주게 하여도'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자신이 뇌물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받는 행위인지, 무엇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항상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 신한금융 '신한플러스' 1000만 회원 돌파

**8000만원 상당 '빙고플러스' 등 내달 5일까지 다양한 이벤트 진행**

신한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 원스톱(One-Stop) 금융플랫폼인 '신한플러스' 가입고객 10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금융을 합하다 혜택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출시된 신한플러스는 출시 6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1000만 회원을 돌파했다.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 동안 총 8000만원이 걸려있는 '빙고플러스' 이벤트가 먼저 진행된다. 그룹사 상품가입을 통해 최대 3만6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신한상품가입 천만달' 이벤트

**천만회원 달성 기념 빙고플러스 이벤트**



2019.03.08 ~ 2019.04.05

와 인기 일러스트작가와 협업한 페이스 북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플러스는 오픈형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신한은행 솔(SOL), 신한카드의 플레이판(PayFA

N), 신한금융투자의 신한아이(i)알파, 신한생명의 스마트창구 앱에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통합리워드제도의 다양한 혜택과 중금리 신용대출 플랫폼인 '스마트대출마당'을 포함한 그룹사의 100여개 주요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출시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동남아 6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그랩 택시서비스', 방콕·오사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캐리어 배송서비스', 소액 해외 주식 매매가 가능한 '글로벌투자여행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고객 편의성을 증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에어서울-키움히어로즈

### 스폰서십 계약 체결

에어서울이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 야구단인 키움히어로즈와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스폰서십 체결을 통해 에어서울은 홈 경기 관람객들을 위한 이벤트 경품으로 항공권 등을 지원하며 키움히어로즈는 2019 올 시즌 동안 고척 스카이돔 본부석 하단에 설치된 LED를 통해 에어서울 브랜드를 노출하는 등 에어서울 홍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즌 중 진행되는 '스폰서 데이'에는 에어서울 승무원이 고척 스카이돔 경기장을 찾아 직접 시구에 나설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 인사

- ◆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이종욱
- ◆ 부산항만공사 △글로벌사업단 단장 박호철
- ◆ 소비자유권시민회의 △공동대표 몽산 스님

## 부음

- ▲ 노점래 씨 별세, 이상근(부천출산농협 상임이사)·상길(시니프대표)·상혁(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씨 조모상 = 6일,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9시
- ▲ 홍재근(신한회계법인 회계사) 씨 별세, 홍종훈(OBSW 총괄국장)·홍성(포스코에너지 부장) 씨 부친상, 이상희(OBS 아나운서 차장)·정지영(한영회계법인 이사) 시부상 = 7일, 강남성모병원, 발인 9일
- ▲ 최석봉(번호사) 씨 별세, 최승순(법무법인 화우 대표번호사)·최호순(사업)·최혜정씨 부친상, 권현진씨 시부상, 이선희(SBS 정책팀 부국장) 씨 장인

- 상 = 7일 오전 10시50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8시
- ▲ 이영숙 씨 별세, 김재근(세종시 대변인)씨 장모상 = 6일 오후 8시, 전북 무주군 무주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10시
- ▲ 이태상씨 별세, 정호승(의사)·정호승(시인)·정성자·정인숙씨 모친상, 이영기(전 명지대 객원교수)·정계성(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씨 장모상 = 6일 오후 7시5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7시30분
- ▲ 조희원(한국전력공사 초대 서울본부장)씨 별세, 조택동(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주은(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현선씨 부친상 = 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 ▲ 곽옥자 씨 별세, 박재운(전 대법관)·재근(전 코오롱상사 부장)·재하(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재준(전 제일은행 이사)·정숙·진숙·은숙 씨 모친상, 이기회(보라매병원 의사)씨 시모상, 김지옥(중앙대 교수)씨 장모상 = 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7시